

박지원의 <죽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 개작과정 연구

- 이본 간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

현 안 옥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개작의 방향 : 은폐된 고통 부각하기 |
| 2. 이본의 계열 분류와 내용 비교 |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박지원이 쓴 「죽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의 이본 분석을 통해, 개작과정의 변이 양상과 작가의 개작 의도를 살피고자 하였다. 특히, 개작을 통해 망자(亡子)의 삶을 어떻게 부각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죽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이 실려 있는, 『병세집』과 연민문고의 『연암초고 八』, 『검헌만필 乾』, 『엄화계집 乾』, 『유상곡수정집 乾』, 『하풍죽로당기 坤』, 『백척오동각집 坤』, 성균관대 소장 『연상각집 墓銘』, 계서본 『연암집』과 박영철본 『연암집』의 이본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본 간에 글자 출입이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소극적 개작’과 ‘적극적 개작’으로 분류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극적 개작’ 유형은 이체자를 제외하면 글자 출입이 적고 비점(批點)이 다양한 형태를 보였으며, ‘적극적 개작’ 유형은 원문과 비교했을 때 추후에 추가된 문장과 삭제된 글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 나에게 묘지명을 부탁하였다(請銘于余)’와 ‘㉡ 반남 박씨이다(潘南人也)’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본 간 차이를 통해 박지원의 개작 의도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로 ‘엄격한 가풍과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 편견’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는 망자(亡子)가 자신의 속내를 꼭꼭 숨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힌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억눌린 문사(文士)적 기질’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문장이 수정되었다. 맑고 깨끗한 마음과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홀로 답답해하던 일화들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로는 ‘비극적 운명에 대한 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단이 재배열되었다. 죽기 전에 자신의 관상을 본 일화 바로 뒤에, ‘평소 관상이 적중했다’는 문장을 덧붙여 요절의 애통함을 더하였다. 이를 통해 평생 더불어 마음 나눌 사람조차 없었던 ‘궁극의 외로움’과 주어진 ‘운명을 거부할 수 없던 고통’이 전면에서 드러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박지원은 단정적 기술방식을 일화 나열과 상황 묘사로 바꾸었으며, 대화를 직접 인용해서 문학성을 높였다.

주제어: 박지원, 비지문, 박수수, 죽손홍문정자박군묘지명, 이본 분석, 개작 과정과 의도, 엄격한 가풍, 문사(文士)적 기질, 궁극의 외로움

1. 서론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산문은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와 전체 문집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특히, 『연암집』과 『열하일기』, 『과정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담파(白塔派)의 영향 관계나 척독, 필담에 대한 연구로 방향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¹⁾ 이외에도 단편 작품

1) 김동국,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서 본 한중문화교류 연구: 문화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2011.

의 개작과정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미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²⁾ 연암의 비지문 중 개별 작품의 개작과정에 대한 연구는 김철조와 정민의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선행 연구가 있다.³⁾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비지문 작품의 수정 과정을 살핀 후속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죽손홍문정자박군묘지명」의 경우 이본에 따라 개작의 흔적이 현격한데도, 이 작품의 개작과정을 다룬 논문이 없다. 다만, 연구자의 글쓰기에 관한 선행 연구만 있다.⁴⁾ 김영진이 다룬 박지원의 필사본 연구에 따르면, 이 작품은 총 12개의 이본이 있다.⁵⁾ 이 중 본고에서는 윤광심(1751~1817)의 『병세

김 영, 「<과정록> 해제」, 열상고전연구 Vol.8, 1995.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 대동한문학 Vol.23, 2005.

김영진, 「박지원(朴趾源)의 필사본 소집(小集)들과 자편고(自編稿) 『연상각집(煙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 동양학 Vol.48, 2010.

박향란, 「연행록소재필담의 연구 ; 홍대용·박지원 등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2010.

서현경, 「『과정록』 이본 서문의 상이성에 관한 연구-전남대본 『열하일기』의 개작 및 박중채와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 Vol.23, 2006.

윤기홍, 「박지원과 후기사가의 문학사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9.

정 민, 「연암 척독소품의 문예미」, 한국한문학연구 Vol.31, 2003.

천금매, 「18~19세기 조·청문인 교류척독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2011.

한상일, 「북학파의 實心的 예술사상 연구; 홍대용·박지원·박제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16.

홍이주, 「박중채의 『과정록』 연구 : 전기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5.

2) 김종민, 「발승암기의 개작 양상과 주제에 대한 비평적 분석」, 한국한문학연구 Vol.52, 2013.

박은정, 「박지원의 ‘초정집서(楚亭集序)’ 다시 읽기 -서(序)와 교차 읽기를 토대로」, 東方學 Vol.30, 2014.

3) 김철조, 「연암 박지원의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연구 -개작과정과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한문학회 Vol.22, 2010.

정 민, 「연암 박지원의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개작과정」, 문헌과 해석사, 2000.

4) 현안옥, 「박지원의 죽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에 나타난 이해와 해원의 글쓰기」, 국어문화회 Vol.59, 2015.

집』에 수록된 「증홍문관정자박군묘지명」과 단국대 연민문고 『연암초고(八)』, 『검헌만필(乾)』, 『엄화계집(乾)』,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의 「증홍문관정자박군묘지명」, 성균관대 소장본인 『연상각집(墓銘)』, 그리고 계서본과 박영철본 『연암집』의 「죽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 총 10편의 변이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 이 외의 이본은 원문을 구하지 못해 선행 연구를 반영하였다.⁶⁾

앞으로 「죽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의 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가며, 연암이 개작을 통해 삶의 어떤 측면을 부각하고 싶어 했는지 그 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연암이 망자의 삶을 이해하는 지점과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의 특성을 밝히려 기대한다. 물론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연암 산문의 우월함과 전략적 배열이 익히 증명되었지만, 각각의 작품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뒤따라야만 개별적 양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죽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의 수차례에 걸친 개작과정을 이본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암이 끊임없는 자기 검열을 통해 어떻게 망자(亡者)의 삶을 담아냈으며, 그 층위는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다.

이 묘지명은 『병세집』과 연민문고의 『연암초고 八』, 『검헌만필(乾)』, 『엄화계집(乾)』,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성균관대 『연상각집(墓銘)』에서는 「증홍문관정자박군묘지명」으로 되어 있고, 계서본과 박영철본에서만 「죽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으로 적혀 있다. 각 작품을 편의상 기술한 차례대로 A, B, C, D, E, F, G, H, I, J로 지칭하여 작품 간의 차이점을 분별해 보겠다. 가장 명확한 구별점은 ‘D와 E의 경계’로, 이본 사이의 개작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렇기에 글자의 출입이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문단이 재배열된 부분을 기점으로, 편의상 A~D를 한 계열로 묶어 ‘소극적 개작’으로 지칭하고, E~J를 ‘적극적 개작’

5) 김영진의 앞 논문(2010) 참조.

6) 이외의 4편은 『연상각집』 계열본으로는 실학박물관의 『雲山萬疊堂集』과 『三洞集』, 한양대 소장 『沔陽集』이 있고, 김택영본 『연암집』 계열이 있다. 연구자가 살피지 못한 이본에 대한 연구는 신호열·김명호의 국역본 『연암집』(돌베개, 2009)에서 다루고 있어, 그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반영하였다.

으로 명명하겠다.

2. 이본의 계열 분류와 내용 비교

2.1. 소극적 개작 : 『연암초고 八』 계열

먼저, 같은 계열에 있는 ‘소극적 개작’ 중 A~D의 작품을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겠다. 작품 개작 과정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민문고의 『연암초고 八』(B)의 전문을 인용하되, 동일 계열의 근소한 차이는 주를 달아 병기하겠다.

- (1) 原任吏曹判書朴公相德 喪其長子及第君⁷⁾綏壽。經爲長子三年⁸⁾ 蓋繼其祖禮曹參判贈領議政諱某 考進士贈吏曹判書諱某之後也。帶麻而深居 忸怩如窮人。將以其年⁹⁾二月日 葬于坡州之筐岷 某坐之原。請銘于余。

원임 이조 판서 박상덕 공이 그 장자인 급제 수수군을 잃었다. 경(經)에 장자를 위해 삼년상을 지낸다는 것은 대개 그 조부인 예조참판 증(贈) 영의정 부군 휘 아무개와 아버지인 진사 증(贈) 이조판서 휘 아무개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박상덕이 상복을 입고 깊이 거처하며 궁인(窮人)처럼 의기소침해 있었다. 장차 그해 2월일에 파주의 광현 모 좌향의 언덕에 장사 지낼 예정이다. 상덕이 나에게 망자의 묘지명을 청하였다.

- (2) 嗟乎。君字公履 潘南人也。母貞夫人平山申氏。君生於甲子某月日 二十三 中生員 後七年¹⁰⁾辛卯 中乙科 明年¹¹⁾壬辰正月日歿 得年¹²⁾二十九。

7) 『연암초고 八』의 ‘及第君’이 『병세집』에서는 동일하며, 『검현만필(乾)』과 『엄화계집(乾)』에서는 ‘及第’로 되어 있다.

8) 『연암초고 八』의 ‘年’자가 『병세집』에서는 동일하며, 『검현만필(乾)』과 『엄화계집(乾)』에서는 ‘年’자로 되어 있다.

9) 『연암초고 八』의 ‘年’자가 『병세집』에서는 동일하며, 『검현만필(乾)』과 『엄화계집(乾)』에서는 ‘年’자로 되어 있다.

10) 『연암초고 八』의 ‘年’자가 『검현만필(乾)』에서는 ‘年’자로 되어 있다.

11) 『연암초고 八』의 ‘年’자가 『검현만필(乾)』과 『엄화계집(乾)』에서는 ‘年’자로

例贈弘文館正字兼知製教。

아! 공의 자는 공니(公履)이며 반남 박씨이다. 모친은 정부인 평산 신씨이다. 군은 갑자년(1744) 모월일에 출생하였고, 23세에 생원에 합격했으며, 그 7년 뒤 신묘년(1771)에 을과에 합격하였고, 다음해 임진년(1772) 정월일에 29세로 돌아갔다. 관례에 따라 홍문관 정자 겸 지제교로 추증되었다.

(3) 君志恬行潔 事親愼畏。 顧子弟之 席父兄剿權 施德色體腹¹³⁾ 盎然 馳聲相詡 其視君爲可羞。 君旣生長銓選家 邈然政注間 定省惟謹 未嘗頌遷一寢。 卽其歷歷視炎涼爲交際向背者 固無所籍君 君亦寡合於世 泊然無味 閉門日哦詩 詩多警新。 時時望遠而思如鶴在樊 顧鬱鬱無誰語 獨自嚮以酒。 塵垢滿室 几上數卷書 常若店旅一宿。

박수수 군의 뜻은 편안하고 행동은 맑아 부모님 모시기를 삼가고 공경하였다. 그런데 부형을 믿고 권세를 자치한 채 덕을 베푸는 기색이 온몸에 흘러넘쳐 허황된 명성을 자랑해대는 자제들을 군에게 건주자면 부끄러울 만 할 것이다. 군은 인재등용을 주관하는 집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추천 대상에 오르는 것과는 무관했고, 아침 문안과 저녁 잠자리 보기를 부지런히 해서 일찍이 한 번도 잠자리를 옮기려한 적이 없었다. 역력히 세대의 염량에 건주어 교제하며 추세를 따르는 자는 진실로 군에게 의지할 게 없었고, 군도 또한 세상과 맞는 것이 드물어 심드렁하니 세상일에 흥미가 없어서, 문을 닫고 시를 날마다 읊조렸는데 시가 특이하고 새로운 표현이 많았다. 때때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하기를 마치 학이 울에 갇힌 듯 했지만, 그 울적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다만 혼자 술로 풀었다. 온 방안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책 두어 권만 있어서, 마치 항상 나그네가 하룻밤 머무는 듯하였다.

(4) 牕¹⁴⁾外二屨 則獨所與賦詩者 時來時去。

창 밖에 신 두 켤레가 있으면 오직 함께 시 짓는 자가 왔다가는 때였다.

(5) 屢隨父大藩 而篋無一筆貯。 嘗欲¹⁵⁾硯室 難其手值而已之。 平壤都邑富麗

되어 있다.

12) 『연암초고 八』의 ‘年’자가 『검헌만필(乾)』과 『엄화계집(乾)』에서는 ‘季’자로 되어 있다.

13) 『연암초고 八』의 ‘體腹’이 『엄화계집(乾)』에서는 ‘体腹’으로 되어 있다.

14) 『연암초고 八』의 ‘牕’자가 『검헌만필(乾)』과 『엄화계집(乾)』에서는 ‘窓’자로 되어 있다.

15) 『연암초고 八』의 ‘欲’자가 『병세집』에서는 ‘欲爲’로 되어 있다.

泉貨如流 其江山樓臺 妙舞清歌 動在左右 而君寂莫如家居。

자주 부친의 관찰사 행을 따라갔지만, 돌아오는 짐 상자 속에는 붓 한 자루도 없었다. 일찍이 벼룩집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그만두었다. 평양도읍은 부유하고 화려해 돈이 샘처럼 흘렀고, 그 강산의 누대에서는 아름다운 춤과 맑은 노랫소리가 좌우에 진동했지만, 군은 평소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고요하고 쓸쓸하게 지냈다.

- (6) 時或自命小僮 携一壺 悄然獨步出 眺覽占詠¹⁶⁾ 忽忽如過客。 有嘲君者 君謝曰 在家則子¹⁷⁾ 在衙則客耳。

때때로 간혹 어린 종을 불러 술병 하나만 들고 조용히 홀로 걸으며 먼 곳을 보며 시를 읊조리니, 아무데도 메인 데 없는 모습이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 같았다. 이런 집에 대해 군에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변명하여 말하기를 “집에 있으면 아들이요, 관아에 있으면 손님일 뿐이죠.”라고 하였다.

- (7) 善相人多奇中。

관상을 잘 보았으며 신기하게도 많이 적중하였다.

- (8) 娶韓山李氏縣監應重女 有一女方五歲。

한산 현감 이응지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5살 된 딸 하나가 있다.

- (9) 君方新進 將業其家世 而顧病於酒 益飲疽而黃。 引鏡自照 抵鏡于地曰 我其久於世哉 書空若有思 因整衣冠 入訣於父母 語多悲愴。 家大驚 始知其病 因暗不言 數日而歿。

군이 막 벼슬에 나아가 장차 집안의 대를 이어 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도리어 술로 병이 났음에도 더더욱 술을 많이 마셔서 황달에 걸렸다. 거울을 끌어다 스스로를 비취보다 거울을 바닥에 던지고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오래살 수 있으리!” 하고는, 허공에 생각이 있는 듯 끼적대다가 곧 의관을 정제하고 들어가 부모에게 하직을 고하니, 말이 매우 비참하였다. 집안사람들이 크게 놀라 비로소 그 병을 알았지만, 군은 황달로 인해 병어리가 되어 말하지 못하고 수일 후에 죽었다.

- (10) 銘曰 貴之徵齷 富之徵濁 壽之徵毒。¹⁸⁾ 慈諒者天之躅 鱗無滓者貧之宅

16) 『연암초고 八』의 ‘詠’자가 『병세집』에서는 ‘咏’자로 되어 있다.

17) 『병세집』과 『연암초고 八』, 『겸헌만필(乾)』의 ‘子’자가 『엄화계집(乾)』에서는 ‘두 줄 굵고 획’으로 정정되어 있다.

18) 『병세집』과 『연암초고 八』, 『겸헌만필(乾)』의 ‘毒’자가 『엄화계집(乾)』에서

好施多予者無高爵。于茲六德 吾將焉擇。吁 不肖者勸而作 愷悌者沮而抑。
有不信視此刻。

명을 지으니 “귀하면 인색함을 부르고, 부유하면 혼탁함을 부르고, 장수하면 해로움을 부르네. 인자하면 요절이 뒤따르고, 맑아 찌꺼기가 없는 자는 가난이 붙고, 베풀기 좋아하는 자는 관작이 없네. 이 여섯 덕목 중에 나는 장차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아! 불초자(不肖者)는 권하여 일으키고, 개계자(愷悌者)는 막고 억누르네! 믿지 못할 것이라면서 글을 보게.”

‘소극적 개작’ 내의 수정은 한 두 단어 차원의 추가와 삭제에 머문다. 가장 먼저 보이는 개작은 (1)단락의 ‘及第君綏壽’ 부분이다. 『검헌만필(乾)』과 『엄화계집(乾)』에서 ‘及第’로 기록하고 ‘君’을 생략했다. 이체자를 토대로 『연암초고 八』과 『병세집』이 같은 부류이며, 『검헌만필(乾)』과 『엄화계집(乾)』이 같은 판본을 통해 필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책을 필사하고 읽으며 감상을 표현한 ‘비점(批點)’이 『연암초고 八』과 『검헌만필(乾)』의 ‘帶麻而深居 忸怩如窮人’에 표시되었다. (3)단락에서도 ‘비점’이 있는데, 『연암초고 八』과 『검헌만필(乾)』에서 공통적으로 ‘顧子弟之 ~ 其視君爲可羞’ 부분에 되어 있다. 『연암초고 八』에서는 ‘顧鬱鬱無誰語 獨自鬯以酒’와 ‘兀上數卷書 常若店旅一宿’에 비점이 추가 되어 있고, 『검헌만필(乾)』에서는 ‘時時望遠而思如鶴在樊 顧鬱鬱無誰語 獨自鬯以酒’에 표시가 있다. 『연암초고 八』에서는 망자가 홀로 답답함을 삭여야 했던 울적함과 지나치게 소박했던 검약함을 부각하였고, 『검헌만필(乾)』에서는 엷매인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외로움’으로 강조하였다. (4)단락에서도 비점 표시가 문장 전체에 있는데, 이는 (3)단락에서 강조했던 망자의 ‘泊然無味’와 ‘詩多警新’을 뒷받침해주는 일화였다. (5)단락에서는 ‘嘗欲硯室’ 부분이 『병세집』만 ‘嘗欲爲硯室’로 되어 있다. ‘欲’자 만으로도 ‘연실을 원했다’는 의미가 충분하지만, 윤광심이 『병세집』을 수록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비점은 『연암초고

는 두 줄 굵고 ‘虐’자로 정정되어 있다.

八』에서만 보이며, ‘平壤都邑富麗 ~ 而君寂莫如家居’에 둥근 원점이 기록되어 있다. 평양의 화려한 풍광과 망자의 적막함이 극적으로 대비를 이뤄, 망자의 품성을 돋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6)단락에서도 개작된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 ‘客’자를 『엄화계집(乾)』에서 ‘桴’자로 수정하였다. ‘소극적 개작’의 작품들이 모두 ‘客’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적극적 개작’에서는 모두 ‘桴’자로 적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 개작’과 ‘적극적 개작’의 경계작이 바로, 『엄화계집(乾)』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비점이 『연암초고 八』에는 ‘忽忽如過客’에 표시되어 있고, 『겸헌만필(乾)』에서는 ‘在家則子 在衙則客耳’에 있다. 『연암초고 八』에서는 (3)단락의 ‘泊然無味’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메인 것 없이 가볍게 떠도는 모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겸헌만필(乾)』에서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하며 (2)단락의 ‘如鶴在樊’을 연결 짓고 있다. (10)단락에서는 ‘毒’자가 『엄화계집(乾)』에서만 ‘虐’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毒’자 대신 ‘虐’을 넣어서 ‘입성’의 10번째 ‘藥’으로 운자를 통일시켰다. 그리고 『연암초고 八』에는 비점이 ‘慈諒者天之躅 ~ 好施多予者無高爵’에 있고, 『겸헌만필(乾)』에서는 ‘不肖者勸而作 愷悌者沮而抑’에 있다. 전자는 선량한 품성이나 행실에 불운이 따르는 운명의 모순성에 강조하였다. 그리고 후자는 부족한 자손은 도와 일으켜 세우지만, 용모와 기상이 아름답고 단정한 자손만은 꺾고 억눌러야 했던, 반남 박씨의 졸박한 가풍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소극적 개작’의 작품들은 ‘君’자의 생략과 ‘牽’자와 ‘窓’자의 필사 차이를 통해, 같은 계열 안에서도 두 부류의 필사 형태로 나뉠 수 있었다. 그리고 ‘欲爲’과 ‘咏’자의 쓰임을 통해 『병세집』의 부분 개작이 윤광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았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엄화계집(乾)』의 ‘桴’자와 ‘虐’자 수정 흔적을 통해, 이 작품이 ‘소극적 개작’과 ‘적극적 개작’의 경계작이라는 것이다.

2.2. 적극적 개작 : 박영철본 『연암집』 계열

다음으로 ‘적극적 개작’의 E~J¹⁹⁾ 중 박영철본의 「족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J) 원문을 인용해 살펴면서, 동일 계열 이본의 글자 출입은 주석으로 표시하겠다. 다만, ‘소극적 개작’과 ‘적극적 개작’ 비교를 위해 앞에서 사용한 단락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새롭게 추가된 문단에만 별도의 기호를 부기한다.

- (1) 原任吏曹判書朴公相德 喪其長子及第君綏壽。經爲長子三年 蓋繼其大考禮曹參判贈領議政府君諱某 考進士贈吏曹判書府君諱某爲別宗也。將以某年月日 葬于坡州筐岷某坐之原。

전 이조판서 박상덕 공이 그 장자인 급제 박수수 군을 잃었다. 경에 장자를 위해 삼 년 상을 지낸다는 것은 대개 그 조부 예조참판 증 영의정 부군 휘 아무개와 아버지 진사 이조판서 부군 휘 아무개를 계승해서 따로 중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장차 모 연월일에 과주 광원 모 좌향의 언덕에 장사 지낼 예정이다.

- (1)-㉠ 公執趾源手。泣曰 以吾兒之嘗愛吾叔文也 不特得其銘以不朽死者 庶幾生者 時閱而得其容聲 以塞其無窮之思也。趾源復于公曰 唯唯。

공이 지원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내 아이가 일찍이 숙부의 글을 좋아하였으니 그 명을 얻으면 비단 죽은 아들이 불후할 뿐만 아니라, 산 가족들이 때때로 잊어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듯해, 무궁한 그리움을 막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하니, 지원이 공에게 대답하기를 “예예”라고 하였다.

- (2)-㉡ 朴維八望 氏于潘南者 族鉅而顯。獨其天賦之拙 與姓俱得傳世 楷範迥異他族。皆內師父兄 外絕浮慕 名論不出戶庭 步履²⁰⁾罕及閭閻。其窮者篤饑²¹⁾工寒 恭惟素分 其達者牧謙養耻²²⁾ 疾或離土。賢者困於自得 而見

19) E~I'는 차례대로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연상각집(墓銘)』의 「증홍문관정자박군묘지명」과 계서본 『연암집』의 「족손증홍문정자박군묘지명」임을 밝힌다.

20) 원문의 ‘步履’이 『유상곡수정집(乾)』에는 ‘履履’이며, 이외의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계서본 『연암집』에서는 ‘步履’으로 기록되어 있다.

善則固執之。 愚者寧坐謏寡不振 而亦不肯與世推移。 樸野隘訥 畫成一家之風 所謂世態時規。 不惟欲學而不能 亦其耳目未暨 無緣薰襲。 稠人廣衆 其色赧然若夏畦之行于莊嶽者 必我朴也。 故雖以公之早²³⁾貴 視其擁笏垂紳 周旋乎廊廟之間 有足自驗其家風也。 然而世或不識我家品²⁴⁾性之如此 而與人少款曲 則頗疑其簡傲 酬事多踈略 則反歸之矯亢 舉謂潘南之朴無挾而自驕也。 一有子弟之聰明才俊²⁵⁾稍露風調者 則聚族而愾之曰 是何以異於²⁶⁾吾家之雅規也。

박씨는 오직 여덟 망족이 있는데 반남에서 씨를 한 자가 일족도 크고 현달하였다. 유독 그 천부적인 품성이 졸렬하기가 성으로부터 같이 얻어 대대로 범절을 전해 본받아 다른 족속들과 다름이 컸다. 모두 안으로는 부형을 스승으로 삼고, 밖으로는 경솔하게 사모하는 것을 끊어, 명론이 집박을 나가지 않고 걸음이 뒷골목에 이르지 않았다. 그 궁핍한 자는 굶주림과 도탑고 추위에도 이끌이 나서, 오직 직분을 다하며 분수대로 하였다. 그 현달한 자는 겸양을 키우고 부끄러움을 길러 흑시라도 선비의 자세를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현명한 자는 스스로 얻는 것에 애쓰고 애써서, 선을 보면 한사코 단단히 붙잡았다. 어리석은 자는 차라리 적어서 떨치지 못할지언정 또한 감히 세상의 추이를 따르지 못하였다. 순박하고 꾸밈이 없고 좁아 어눌함으로 일가의 품격을 이루어 한 획을 그었다. 이른바 당시 세태와 시속을 본받고 배우고자 하여도 능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귀와 눈이 닿지 못해서 교화하고 받아들일 길이 없었다. 사람들이 많아 뻑뻑한 가운데 얼굴색이 발그레하니 붉어지는 것이 마치 시골농부가 서울을 다니는 것처럼 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박씨

- 21) 원문의 '饑'자가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연상각집(墓銘)』에서는 '飢'자로 되어 있다.
- 22) 원문의 '耻'자가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에서는 '恥'자로 되어 있다.
- 23) 원문의 '부'자가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연상각집(墓銘)』, 계서본 『연암집』에서는 '蝚'자로 되어 있다.
- 24) 원문의 '我家品性~'에서 '家品'이 『유상곡수정집(乾)』에서 '家所'로 되어 있다.
- 25) 원문의 '俊'자가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연상각집(墓銘)』에서는 '儻'자로 되어 있다.
- 26) 원문의 '於'자가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연상각집(墓銘)』에서는 '乎'자로 되어 있다.

이다. 비록 공이 일찍 귀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홀을 끼고 허리띠를 늘어 뜨리고 낭묘 가운데 주선하는 것을 보면, 족히 절로 그 가풍을 증험 할 만하였다. 그러나 세상사람 중에 혹 우리 집안 품성이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과 다정하게 지내면서 흥허물 터놓는 것이 적으면 자못 뻗뻗하고 오만한 것이라 의심하고, 응대하는 일이 소략하면 도리어 뻗뻗한 탓으로 돌렸으니, 다들 만남 박씨는 가진 것도 없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말하였다. 자제 중에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조금이라도 그 능력이 드러나는 자가 있으면, 일족들이 모여 두려워하며 말하길 “어째서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평소 규범과 다른가?”라고 하였다.

- (3) 吾嘗見長逝者之如彼其才美也 而猶恐或露於家庭 厚自掩匿之不暇 而況於他人乎。 雖邈迤科第 泊然寡味 時時望遠 而思如鶴在樊。 顧鬱鬱無誰語 則獨自嚮以酒。 塵垢滿室 几上草草數帙書 恒若旅舍一宿。

내가 일찍이 망자가 저처럼 재주가 아름다운 것을 본적이 있는데도, 혹시라도 집안에서 조차도 재주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스스로를 꼭꼭 감추느라 여념이 없었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야 어땠겠는가? 비록 의도치 않게 과거에 급제했지만 심드렁하니 관심이 적었으며, 때때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 마치 울 속의 학과 같았다. 그러나 그 울쩍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술로 풀었다. 온 방안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초라하니 책 두어 권만 있어서, 항상 마치 나그네가 하룻밤 머무는 듯하였다.

- (5) 屢隨父大藩 而篋中無一墨之貯。 嘗欲造硯室 難於工值而已之其拙如此。 平壤都邑富麗 泉貨如流 其名樓高臺 四方遊客輻湊 清歌妙舞 動在左右 而君方俛首課程文。

자주 부친의 관찰사 행을 따라갔지만, 돌아오는 짐 상자 속에는 붓 한 자루도 없었다. 일찍이 벼루집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그만두었으니, 그 졸박함이 이와 같았다. 평양도읍은 부유하고 화려하며 재화가 물 흐르듯 하고, 이름난 누각과 높은 누대가 있어서 사망에서 유객들이 폭주하였고, 아름다운 노래와 빼어난 춤사위가 걸핏하면 좌우에 있었지만, 굳은 한창 고개를 숙이고 과거 공부를 하였다.

- (4) 戶外二履 乃其同硯士²⁷⁾也。

27) 원문의 ‘同硯士’가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문 밖에 신발 두 켤레가 있으면, 바로 함께 공부하는 선비의 것이었다.
 (6) 時或自命小僮 携一壺 飄然獨步出 憑眺咏哦 忽忽如過客。 一營軍吏 莫有知君在衙 有嘲君者 君謝曰 在家則督 在衙則客。

때때로 간혹 어린 종을 불러 술병 하나만 들고, 훌쩍 홀로 걸어 나가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보며 시를 읊조리기도 하였으니, 아무데도 메인 데 없는 모습이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 같았다. 이런 점에 대해 군에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변명하여 말하기를 “집에서는 큰 아들이지만 관아에서는 나그네인걸요” 라고 하였다.

(1)-㉠ 嗟乎。 公之爲父二十九年 所知於其子者 惟其孝友恭儉 不失家風 而忘憂於窮達 賢愚之間。 若其思致之清曠 文詞之瑰麗 亦莫得以知焉。 則君之賢有大過於人 而今不忍爲之詳其平生 以重憾公心也。 公大慟曰 有是哉。 有是哉。 則乃生者之冤酷於死者 願以此誌其墓。 遂書而序之曰。

아! 공이 아버지 된 지 29년 동안에 아들에 대해 오직 효우공검의 가풍을 잃지 않고 궁달현우에 대해 근심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이처럼 아득하고 끝없는 생각과 아름답고 화려한 글재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군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현명했지만, 차마 지금 군의 평생을 자세히 기록해서 더욱 공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못하겠다. 공이 크게 서러워하며 말하기를 “그랬군요. 그랬다면 살아있는 아버지의 원통함이 죽은 자식보다 심하겠군요. 원컨대 이 말한 내용으로 묘지명을 써주세요”라고 했다. 마침내 쓰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君字公履 母貞夫人平山申氏 僉正瞻之女。 君生於上之甲子 歿於壬辰某月日。 二十三 中進士²⁸⁾ 二十八 中文科。 其翌年歿 而未及分館 故例贈弘文館正字。

군의 자는 공니이고, 어머니는 정부인 평산 신씨로 첨정 흡의 따님이다. 군은 현재 임금의 갑자년(1744)에 태어났고, 임진년(1772) 모 월일에 죽었다. 23살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28세에 과거급제 하였다. 다음 해에 죽어서 미처 분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홍문관 정자로 추증되었다.

『연상각집(墓銘)』에서는 ‘同研士’로 되어 있고, 계서본 『연암집』은 ‘同年士’로 되어 있다.

28) 원문의 ‘進士’가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연상각집(墓銘)』에서는 ‘司馬’로 기록되어 있다.

(8) 娶縣監韓山李應重女 有一女方五歲。

현감 한산 이응중의 딸에게 장가갔으며, 딸이 막 5살이 되었다.

(9) 君方新進 將業其家世 而顧病於酒 益飲疽而黃。引鏡自照 抵鏡於地曰 我其久於世哉 書空若有思 因整衣冠 辭訣於²⁹⁾父母 語多悲愴。家大驚 始知其病 方邀醫治疽未及。而君因瘖不言 數日而歿。

군이 이제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 장차 가세를 이으려 했으나, 도리어 술로 병이 났는데도 더더욱 술을 많이 마셔서 황달에 걸렸다. 거울을 끌어다가 스스로를 비춰보더니 땅에 거울을 던지고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오래살 수 있겠는가!” 하고는 허공에 글을 써 마치 생각이 있는 듯하더니, 의관을 정제하고 부모에게 이별의 말을 고하니 말이 매우 비참하였다. 집안사람들이 크게 놀라 그제서야 병을 알고 바로 의원을 맞아 병을 다스리게 했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군은 황달로 인해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더니 수일 후에 죽었다.

(7) 善相人多奇中。

관상을 잘 보았으며 신기하게도 많이 적중하였다.

(10) 銘曰 貴之徵澗 富之徵濁 壽之徵瘡。慈諒者天之躡 儻無滓者貧之宅 好施多予者無高爵。于茲六德 吾將焉擇。吁 不肖者勸以作 愷悌者沮而抑。有不信視此刻。

명을 지으니, “귀하면 인색함을 부르고, 부유하면 혼탁함을 부르고, 장수하면 포악함을 부르네. 인자하면 요절이 뒤따르고, 맑아 찌꺼기가 없는 자는 가난이 붙고, 베풀기 좋아하는 자는 관작이 없네. 이 여섯 덕목 중에 나는 장차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아! 불초자(不肖者)는 권하여 일으키고, 개계자(愷悌者)는 막고 억누르네! 믿지 못할 것이라면 이 글을 보게.

(후평)³⁰⁾ 千古寫照之文 莫如司馬遷。每於人疵處闕略處 必極力摹寫。

要知疵處闕略處 人之餘也 餘者 神所寄也 所謂筆之前文之外也。戴葭湄 爲人寫照曰 貌圓而以方寫之 貌長而以短寫之。寫者³¹⁾方且短 而肖者圓而長。

29) 원문의 ‘於’자가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연상각집(墓銘)』에서는 ‘于’자로 되어 있다.

30) 후평은 『백척오동각집(坤)』과 계서본·박영철본 『연암집』에만 실려 있다. 그리고 『백척오동각집(坤)』에는 원문 외에 ‘知其人者讀此文 方知先生文章之造妙’가 추가되어 있다.

此語最宜操觚家。余嘗於衆中一見此人 今讀此篇 約略得筆墨蹊徑。

천고에 남을 묘사하는 글로 사마천 같은 이가 없다. 매양 사람의 흉터와 이지러진 것은 반드시 극력으로 묘사하였다. 요컨대 흉터와 이지러진 것은 사람의 나머지고, 그 나머지는 정신이 붙은 것이니, 이른바 붓 이전의 것이고 글 너머의 것임을 알겠다. 대가미는 남을 위해 초상 그리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모습이 둥글면 각지게 그리고 모습이 길면 짧게 그린다. 네모지고 짧은 것을 그리지만 초상은 둥글고 길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문장가에게 가장 마땅한 말이다. 내가 일찍이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글을 읽으니 대략 글을 쓰는 지름길을 알겠다.

‘적극적 개작’ 중 (2)-㉠의 ‘步履’이 『유상곡수정집(乾)』에는 ‘履履’으로, ‘我家品性→我家所性’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자와 ‘於’자는 박영철본 『연암집』에서만 다르다. ‘是何以異于吾家之雅規也’에서 ‘于’자를 ‘於’자로 수정해 문장을 다듬었다. (3)단락에서는 『백척오동각집(坤)』에 비점(批點)이 추가 되어 있다. 먼저 ‘雖邂逅科第 泊然寡味’에 빠침이 되어 있고, ‘時時望遠 ~ 恒若旅舍一宿’에는 둥근 원점이 표시되어 있다. 뒤에 이어지는 단락에서도 둥근 원점은 계속되며 그 연계성을 살펴보면, 서두의 빠침 표점은 생애 전체를 집약적으로 표현 것이고, 그 이후 이어지는 둥근 원점은 구체적인 일화의 나열이다. (4)단락은 ‘소극적 개작’과 달리 (5)단락 뒤로 문단 이동이 되어 있다. ‘적극적 개작’의 (5)단락을 살펴보면, ‘平壤郡邑富麗 ~ 而君方俛首課程文’에만 둥근 원점이 있다. (3)단락의 ‘泊然寡味’를 부연하는 뒷받침 문단으로 해석된다. 그 뒤에 이어지는 (4)단락 또한 문장 전체에 둥근 원점이 표시되어 있다. 이곳에 원문의 ‘同硯士’가 ‘同研士’ 또는 ‘同年士’로 되어 있는데, ‘硯’자를 쓴 것은 동접(同接)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단락의 ‘時或自命小僮 ~ 忽忽如過客’에만 둥근 원점이 추가 되어 있다. (4)단락에서 동접과 함께 있으면서도, 홀로 술병만 들고 나와 시를 읊조리는 모습에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이 부각되었다. 가까운 벗과도 나눌 수 없는 ‘궁극의

31) 『백척오동각집(坤)』에서는 ‘者’ 자가 ‘之’자로 되어 있다.

고독한 성품'은 앞서 (2)단락에서 언급한 만남 박씨의 '樸野隘訥'과 (3)단락에서 연암이 목격한 망자의 '顧鬱鬱無誰語'를 반영한 일화라 할 수 있다. (2)단락에서는 '進士'가 '司馬'로 되어 있는데, 명확한 표현을 위해 '進士'로 수정하였다. (9)단락의 '辭訣於父母'에서 '於'가 '于'자로 수정해서 문장을 다듬었다. (10)단락에서는 '貴之徵畜 ~ 好施多予者無高爵'에 둥근 원점이 표시되어 있다. 망자의 생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부각한 것으로 '貴', '富', '壽'와 '慈諒者', '饒無滓者', '好施多予者'를 대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후평의 경우 원문의 '者'자가 『백척오동각집(坤)』에서는 '之'로 되어 있지만, 원문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백척오동각집(坤)』에 추가된 '知其人者讀此文 方知先生文章之造妙'는 다른 이본에 없는 후평이다.

'적극적 개작'의 경우 같은 분류 내에서 『유상곡수정집(乾)』, 『하풍죽로당기(坤)』, 『백척오동각집(坤)』, 『연상각집(墓銘)』이 동일 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2)단락의 '饑', '耻', '俊'의 이체자와 '司馬', (4)단락의 '同研士', (9)단락의 '于'자의 쓰임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계열 안에서도 『유상곡수정집(乾)』에서만 '履履'이 쓰였음을 통해, 동일 계열 내에서도 초기 이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5)단락의 '무'자와 '於'자를 통해서 계서본과 박영철본이 또 한 차례 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점이 『백척오동각집(坤)』에만 있어, 계열 내에서도 차별화되었다.

3. 개작의 방향 : 은폐된 고통 부각하기

'소극적 개작'과 '적극적 개작'의 이본을 살피기 위해서, '소극적 개작'에서 원본으로 삼은 『연암초고 八』 「贈弘文館正字朴君墓誌銘」과 '적극적 개작'의 박영철본 『연암집』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을 비교하여 계열 별 차이를 살피도록 하겠다. 다음 표는 앞서 부기한 문단 번호 외에 별도의 공통 차례를 매겨 정리한 것이다.

	소극적 개작	적극적 개작
	「연암초고(八)」 贈弘文館正字朴君墓誌銘	박영철본 「연암집」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
1	(1) 原任吏曹判書朴公相德 喪其長子及第君綏壽。經爲長子三年 蓋繼其祖禮曹參判贈領議政諱某 考進士贈吏曹判書諱某之後也。帶麻而深居 忸怩如窮人。將以其年二月日 葬于坡州之筐峴 某坐之原。㉔請銘于余。	(1) (좌동)~ 蓋繼其大考禮曹參判贈領議政府君諱某 考進士贈吏曹判書府君諱某爲別宗也。將以某年月日 葬于坡州筐峴某坐之原。
2		(1)-㉔ 公執趾源手。泣曰以吾兒之嘗愛吾叔文也 不特得其銘以不朽死者庶幾生者 時閱而得其容聲 以塞其無窮之思也。趾源復于公曰 唯唯。
3	(2) 嗟乎。君字公履 ㉔潘南人也。母貞夫人平山申氏。君生於甲子某月日二十三 中生員 後七年辛卯 中乙科明年壬辰正月日歿 得年二十九。例贈弘文館正字兼知製教。	
4		(2)-㉔ 朴維八望 氏于潘南者 族鉅而顯。獨其天賦之拙 與姓俱得傳世 楷範迥異他族。皆內師父兄 外絕浮慕名論不出戶庭 步屨罕及閭閻。其窮者篤饑工寒 恭惟素分 其達者牧謙養耻疾或離土。賢者困於自得 而見善則固執之。愚者寧坐謏寡不振 而亦不肯與世推移。樸野隘訥 畫成一家之風 所謂世態時規。不惟欲學而不能 亦其耳目未暨 無緣薰襲。稠人廣衆 其色赧赧然若夏畦之行于莊嶽者 必我朴也。故雖以公之早貴 視其擁笏垂紳 周旋乎廊廟之間 有足自驗其家風也。然而世或不識我家品性之如此 而與人少款

		曲 則頗疑其簡傲 酬事多踈略 則反歸之矯亢 舉謂潘南之朴無挾而自驕也。一有子弟之聰明才俊稍露風調者 則聚族而愴之曰 是何以異於吾家之雅規也。
5	(3) 君志恬行潔 事親愼畏。顧子弟之席父兄剽權 施德色體腹盎然 馳聲相詡 其視君爲可羞。君旣生長銓選家 邈然政注間 定省惟謹 未嘗頌遷一寢。卽其歷歷視炎涼爲交際向背者 固無所籍君 君亦寡合於世 泊然無味 閉門日哦詩 詩多警新。時時望遠 而思如鶴在樊 顧鬱鬱無誰語 獨自鬯以酒。塵垢滿室 几上數卷書 常若店旅一宿。	(3) 吾嘗見長逝者之如彼其才美也 而猶恐或露於家庭 厚自掩匿之不暇 而況於他人乎。雖邂逅科第 泊然寡味 時時望遠 ~ (斗童)則獨自鬯以酒。塵垢滿室 几上草草數帙書 恒若旅舍一宿。
6	(4) 牕外二屨 則獨所與賦詩者 時來時去。	
7	(5) 屢隨父大藩 而篋無一筆貯。嘗欲硯室 難其手值而已之。平壤都邑富麗 泉貨如流 其江山樓臺 妙舞清歌 動在左右 而君寂莫如家居。	(5) (斗童)~難於工值而已之其拙如此。平壤都邑富麗 泉貨如流 其名樓高臺 四方遊客輻湊 清歌妙舞 動在左右 而君方俛首課程文。
8		(4) 戶外二履 乃其同硯士也。
9	(6) 時或自命小僮 携一壺 悄然獨步出 眺覽占詠 忽忽如過客。有嘲君者 君謝曰 在家則子 在衙則客耳。	(6) (斗童) ~ 飄然獨步出 憑眺咏哦 忽忽如過客。一營軍吏 莫有知君在衙 有嘲君者 君謝曰 在家則督 在衙則客。
10	(7) 善相人多奇中。	
11		(1)-㉠ 嗟乎。公之爲父二十九年 所知於其子者 惟其孝友恭儉 不失家風 而忘憂於窮達 賢愚之間。若其思致之清曠 文詞之瑰麗 亦莫得以知焉。則君之賢有大過於人 而今不忍爲之詳

		其平生 以重誠公心也。公大慟曰有是哉。有是哉。則乃生者之冤酷於死者願以此誌其墓。遂書而序之曰。
12		(2) 君字公履 母貞夫人平山申氏 僉正曠之女。君生於上之甲子 歿於壬辰某月日。二十三 中進士 二十八 中文科。其翌年歿 而未及分館 故例贈弘文館正字。
13	(8) 娶韓山李氏縣監應重女 有一女方五歲。	(8) (좌동)
14	(9) 君方新進 將業其家世 而顧病於酒 益飲疽而黃。引鏡自照 抵鏡于地曰 我其久於世哉 書空若有思 因整衣冠 入訣於父母 語多悲愴。家大驚 始知其病 因暗不言 數日而歿。	(9) (좌동) ~ 辭訣於父母 語多悲愴。家大驚 始知其病 方邀醫治疽未及。而君因瘖不言 數日而歿。
15		(7) 善相人多奇中。
16	(10) 銘曰 貴之徵嗇 富之徵濁 壽之徵毒。慈諒者夭之躄 嶮無滓者貧之宅 好施多子者無高爵。于茲六德 吾將焉擇。吁 不肖者勸而作 愷悌者沮而抑。有不信視此刻。	(10) (좌동) ~ 壽之徵虐。(좌동) ~。
17		千古寫照之文 莫如司馬遷。每於人疵處闕略處 必極力摹寫。要知疵處闕略處 人之餘也 餘者 神所寄也 所謂筆之前文之外也。戴葭澗爲人寫照曰 貌圓而以方寫之 貌長而以短寫之。寫者方且短 而肖者圓而長。此語最宜操觚家。余嘗於衆中一見此人 今讀此篇 約略得筆墨蹊徑。

먼저 작품명을 살펴보면 ‘적극적 개작’에는 ‘族孫’이 추가되어 있다. 후기작에서는 가족관계를 부기함으로써 대상을 더 구체화하였다. ‘적극적 개작’의

1-(1)에서 ‘府君’이 추가되었고³²⁾, ‘祖→大考’, ‘~之後也→爲別宗也’로 바뀌서 선조를 계승해 별개 종(宗)이 되었음을 추가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其年→某年’으로 수정하였고, ‘과주의 광현(坡州之筐峴)’에서 ‘之’자를 생략해 꼭 필요한 단어만 남겨두었다. 11-(3)에서는 ‘縣監’을 문장의 앞으로 옮겼다. 이외에도 ‘소극적 개작’의 3-(2)와 동일한 문장이 ‘적극적 개작’에서는 12-(2)로 재배열되었다. 이 외에도 ‘嗟乎’를 생략했고, ‘僉正曠之女’를 추가하여 모친의 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망한 ‘甲子’년에 ‘지금 임금(上之)’을 추가하였고, ‘生員→進士’로 바뀌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무의미한 ‘某月日’을 생략했다. ‘後七年辛卯→二十三’으로 수정했는데, ‘개작 I’에서 23세에 진사가 되고 7년 뒤라 하면 30세이다. 그렇기에 ‘七年’은 오류이며, 이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二十三中文科’로 고쳤으며, 이후 사망한 해도 ‘明年→其翌年’으로 바꾸었다. 추증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而未及分館 故~’를 추가하였으며, 홍문관 정자 외의 지체교 겸임은 삭제하였다. 이처럼 ‘소극적 개작’에서 ‘적극적 개작’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인물 관련 정보는 구체화하고, 문장은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작의 특별한 의도가 두드러지는 부분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1. 묘주에게 가해지는 가풍(家風)과 사회적 시선의 억압

‘소극적 개작’의 ‘[㉠]潘南人也’가 ‘적극적 개작’에서는 4-(2)-[㉠]으로 크게 확장되어, 반남 박씨의 가풍을 266자로 추가 기술하였다. 다소 방대하고 장황한 본관에 대한 설명이 망자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이 단락은 망자의 생애와 죽음을 이해하게 하는 실마리이다. 반남인의 성품(姓品)을 ‘변화가(莊巖) 속 시골 농부(夏畦)’로 비유해서, 특유의 순박하며 축스리워 몸 둘 바조차 모르는 이 어눌함

32) 신호열·김명호의 국역본 『연암집』에 따르면, 김택영 편 『연암속집』과 『중편 연암집』에서는 ‘某’를 ‘師正’과 ‘興源’으로 가계를 구체화했다고 한다. 이 취지는 지금까지 살핀 ‘소극적 개작’에서 ‘적극적 개작’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유사하다. 그리고 『운산만첩당집』에서는 이 작품의 평어로 “고친 원고가 처음 원고만 못하다(改本不如初本)”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고 한다.

을 ‘졸박(拙朴)’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일족도 많고 크게 현달(巨族顯達)한 가문이다 보니 세속의 눈에는 ‘樸野隘訥’한 천성이 도리어 ‘오만하고 제멋대로 교만해(簡傲自驕)’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저절로 더 자중(自重)하고 근신(謹身)하며 세속과 거리를 두었고,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적극적 개작’에서는 5-(3)을 수정해서 망자가 재주를 스스로 감추게 됨(厚自掩匿)을 직접 언급하였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상관없는 부친 일화를 나열한 것 같지만, 망자가 ‘試多驚新’한 재능을 숨긴 곡절을 설명한 것을 치밀하게 덧붙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16-(10)은 ‘壽之徵毒→壽之徵瘖’으로 수정해서 입성의 10번째 자리까지 맞추었다.

‘소극적 개작’의 7-(5) ‘篋無一筆貯’를 ‘적극적 개작’에서는 ‘篋中無一墨之貯’로, ‘嘗欲硯室→嘗欲造硯室’로, ‘難其手值→難於工值’로 수정하였다. 뒷부분에 ‘其拙如此’를 추가하여 4-(2)-㉠의 ‘졸박(拙朴)’한 가풍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서 망자가 물려받은 ‘성품(姓品)’을 증명하는 일화가 이어지는데, 화려한 평양의 시끌벅적함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을 부각하였다. 이 부분은 ‘소극적 개작’에서 ‘적극적 개작’으로 옮겨가면서 ‘四方遊客輻湊’가 추가되고, ‘江山樓臺→名樓高臺’, ‘妙舞清歌→清歌妙舞’로 바뀌어서, 평양의 호화스러운 풍광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君寂寞如家居→君方俛首課程文’으로 수정해서, ‘조용하게 집처럼 머무는 모습’을 ‘머리 숙여 힘써 과거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그려내었다. 그 결과 ‘樸野隘訥’함이 망자의 생전 일화를 통해 증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을 통해 묘주(墓主)가 생전에 감당했어야 하는 완고하고 답답했던 가풍과 그 가문을 보는 세상의 배타적인 시선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 결과 묘주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며, 사회적 구조의 억압 속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억압적 틀에 갇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박수수의 개인적 기질과 성향이 그 공허하고 숨막힐 듯한 병증을 더하였고, 그 내밀한 사정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던 연암의 추가 기술을 통해 그것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작의 흔적은 다음 절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3.2. 묘주의 문사(文士)적 기질과 지향

개작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극적 개작’의 1-(1)의 ㉞請銘于余’이 ‘적극적 개작’에서는 2-(1)-㉞과 11-(1)-㉞으로 확대된 것이다. 연암에게 박종덕이 아들의 묘지명을 부탁하는 장면 대화를 2-(1)-㉞으로 기록하였고, 구체적인 묘지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11-(1)-㉞으로 직접 옮겨서 현장감을 살리면서, 동시에 이 글이 왜 ‘해원(解冤)’의 글인지를 알게 해준다.

‘소극적 개작’에서 아들을 잃은 부친의 모습을 ‘궁인(窮人)’으로 직접 설명했지만, ‘적극적 개작’에서는 2-(1)-㉞에 총 54자를 추가하여 당시 대화 상황을 인용했는데, ‘평소 숙부의 문장을 좋아해서(吾兒之嘗愛吾叔文也)’라는 대목과 11-(1)-㉞이 긴밀하게 연계된다. 11-(1)-㉞은 총 111자가 새롭게 추가된 문단이며, 그동안 감정적 표현을 최대한 억제했던 것이 ‘嗟乎’를 기점으로, 대화를 직접 인용하며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소극적 개작’의 5-(3)의 ‘~其才美也’로 감추어두었던 망자의 내면을 비로소 ‘若其思致之清曠 ~ 亦莫得以知焉’으로 표면화되었다. ‘清曠’은 ‘고요하고 깨끗하며, 확 트여서 넓은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망자가 보였던 ‘홀쩍 떠나(飄然)’, ‘메인 데 없어(忽忽)’이 ‘지나가는 나그네(過客)’같던, 행실들을 한 께미로 이해하게 된다. 바로, 망자의 문사(文士)적 기질이 발현된 것이며, 이 기질이 연암의 눈에 단번에 들어왔고, 이런 맥락으로 망자 또한 연암의 글을 사모하였다. 그러나 이 기질은 집안이나 가족에게는 표출되지 않았고, 완벽하게 가려지고 숨겨졌었다. 그렇기에 부친 또한 연암을 통해서만 아들의 ‘雖邂逅科第 泊然寡味, 時時望遠, 顧鬱鬱無誰語, 飄然獨步出, 獨自釀以酒’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어지는 부분 개작들은 망자의 ‘억눌렸던 문사적 기질’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일화의 나열이다. ‘소극적 개작’의 5-(3)은 일반적 비지문에서 사용하는 인물에 대한 찬술자의 평가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적극적 개작’의 5-(3)에서는 81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³³⁾ 삭제하고, ‘泊然無味→泊然寡味’로만 바뀌어서 살려두었다. ‘세상에 메인 데 없는 모습(泊然)’은 망자의 기질이며, ‘세

속적인 일에 뜻이 거의 없었다(寡味於世)’는 그로 인한 결과이다. 동시에 ‘내가 일찍이 망자를 본적이 있는데(吾嘗見長逝者~)’라는 서두를 남겨서, 주관적일 수 있는 판단을 최대한 객관화하고, 행동을 평가하는 대신 묘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1)에서 보인 서술방식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소극적 개작’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낸 ‘閉門日哦詩 詩多警新’을 ‘적극적 개작’에서는 일체 생략하였다. 5-(3)에서는 학이 새장에 갇혀서 먼 허공을 보는 듯하며, 그 답답한 심정을 혼자 술로 풀던 모습만 부각되어 있다. 그 뒤로 ‘소극적 개작’에서는 ‘塵垢滿室 兀上數卷書 常若店旅一宿’이라 덧붙였던 것에, ‘적극적 개작’ 단계에서 ‘草草’를 추가하였고, ‘卷書→帙書’, ‘店旅→旅舍’로 수정하였다. 아울러 ‘여사(旅舍)’라는 말을 통해 나그네가 스쳐가듯 처소를 검약하게 꾸리던 일상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

‘소극적 개작’의 6-(4)는 ‘적극적 개작’에서 8-(4)로 문장 위치가 재배열되어 있다. ‘廳’을 ‘戶’로 바뀌어서 창밖으로 한정 지은 시각적 범위를 덧붙여 올려 있는 신발과 집 전체적인 모습으로 확장시켰다. ‘소극적 개작’에서는 ‘함께 시를 짓는 친구가 왔을 때만 신발이 두 켤레인 것’으로 설명했지만, ‘적극적 개작’에서는 7-(5) 뒤로 옮겨서 ‘程文’에 힘쓰던 중에 어쩌다 ‘동학의 선비가 왔을 때만 신발이 두 켤레 놓여 있었다’로 기술하였다. 문장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화려한 평양의 풍류와 망자의 소소하고 고적한 취향이 더욱 한적하고 고독하게 부각되어 더욱 대조를 이룬다.

9-(6)은 ‘悄然→飄然’으로, ‘眺覽占詠→憑眺咏哦’로 수정하였다. ‘소극적 개작’에서는 ‘조용히’, ‘멀리 보며 시를 읊조리다’는 표현이었으나, ‘적극적 개작’에서 ‘홀쩍 떠나서’,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보며 시를 지어 읊조리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더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살아났다. 그 뒤에 ‘一營軍吏 莫有知君在衙’를 추가해서, ‘표연함(飄然)’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외에 못사람의 조소에 “在家則子 在衙則客耳”라고 말한 것을 “在家則督

33) ‘소극적 개작’의 ‘君志恬行潔 事親愼畏 顧子弟之席父兄剿權 施德色體腹 盎然馳聲 相詡 其視君爲可羞 君既生長銓選家 邈然政注間 定省惟謹 未嘗頌遷一寢 卽其歷 歷視炎涼爲交際向背者 固無所籍君 君亦寡合於世’까지의 기술이 삭제되었다.

在衙則客”으로 수정했다. 원래 이 문장은 『사기』 권41 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에 ‘집에 만아들이 있으면 그 집안의 감독이라 한다. (家有長子曰家督)’인데, 연암이 ‘在家則督’의 ‘督’자를 ‘子’자로 기록하였다가, 추후 수정 과정에서 원문을 반영해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기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꼭꼭 숨긴 채, 덩그러니 적막하게 살던 생애를 최대한 구현해 내었으며, 동시에 시(詩)와 술로 소일하던 일상을 곳곳에 나열하였다. 평소 망자가 스스로 감추었던 ‘문사적 기질’을 개작 과정에서 여실히 밝혀내 주었고, 연암과 망자의 내밀했던 관계망도 엿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망자의 죽음이 가져오는 애절함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했던 연암의 노력들도 눈에 두드러진다.

3.3. 비극적 운명에 대한 묘주의 예지 혹은 자기 결정

‘소극적 개작’에서는 10-(7) 생애와 처자록 사이에 배치했지만, ‘적극적 개작’에서는 처자록과 명(銘) 사이에 놓여 있다. 글을 말미로 옮겨서 14-(9)와 맞닿아 의미심장함을 더 한다. 이때 주목할 지점은 14-(9)의 ‘顧病於酒 益飲瘡而黃’ 부분이다. 당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최악의 불효이며, 근신을 평생 실천한 반남 가문에서 수신(修身)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부분을 개작 과정에서 더 부각해서 배열한 까닭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열쇠는 후평(17)에서 찾을 수 있다.

후평은 ‘소극적 개작’에는 없고 ‘적극적 개작’에서 추가되었다. 사마천이 ‘흉터’와 ‘이지러진 점’을 힘써 묘사해 명문(名文)을 썼고, 대가미가 인물과는 반대로 그림을 그려 초상화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인물의 가장 아픈 약점을 집요하게 드러낼수록 진짜 생애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본문의 15-(7)을 살피면 망자는 신기할 정도로 관상을 잘 보았고, 이 재능은 자신의 상을 보는 일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죽기 전에 거울로 자신의 관상을 살피고는 거울을 바닥에 던지고, “내가 어찌 이 세상에 오래하겠는가!”라는 한탄을 한 후, 허공에 할 말이 있는 듯이 글을 썼다는 일화는 단순

한 나열이 아니다. 망자는 이미 자신의 비극적인 ‘요절의 상(相)’을 보았기에 그토록 좌절했던 것이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에 술로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다. 그러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부모에게 사직을 고했으니, 운명을 미리 안다는 것은 망자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술로 병이 들었는데도 술을 더욱 마셨다는 것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으며, 이조차도 ‘단단히 감추고 가려야 했던(掩匿)’ 생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묘주는 평생토록 ‘울적해 하며 누구와도 깊은 속내를 나누지 못했다(鬱鬱無誰語)’는데, 이 곡절을 이해한 후에서야 비로소 그의 삶을 온전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14-(9)에서는 ‘入訣於父母→辭訣於父母’로 바뀌서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였고, ‘적극적 개작’에 ‘方邀醫治疽 未及而君’을 추가해서,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떠난 망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소극적 개작’의 3-(2) 정보를 ‘적극적 개작’에서는 11-(1)-㉠ 뒤에 배열하여, 망자의 요절에 대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더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13-(8)의 아내와 어린 5살배기 딸에 대한 기록은 1-(1)에서 ‘~爲別宗也’라고 변경되었던 부분과 연결해 읽어야 한다. 수수의 죽음에는 또 다시 집안의 후사(後嗣)가 끊긴 아픔이 더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극적 개작’에서는 묘주(墓主)의 ‘흠결(疵處)’이라 할 수 있던 요절(夭折)을 전면에 두고 그 까닭을 이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개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졸박한 반남 박씨의 천성과 세속인들의 편견, 완고해서 타협할 줄 모르며 더욱 움츠러들어야만 했던 가풍, 고즈넉하고 매인 곳 없이 담박하던 성품,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문재(文才)와 벗어날 수 없던 운명을 전략적이며 단계적으로 부각하고 있었다. 개인과 가족,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고통의 근원적 연유를 밝혀 줌으로써, 망자의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했던 생애’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4. 결론

지금까지 이본의 변화 양상을 살폈는데, ‘소극적 개작’ 유형은 이체자를 제외하면 글자 출입이 적고 비점(批點) 양상이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맥락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의 부분 수정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적극적 개작’으로 넘어가는 지점이었으며, 이 개작과정에서 연암이 망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더 치밀해지고 전략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가족 관계를 기술하는 문장에는 존칭과 구체적인 직함을 기록하고, 시기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망자와 부친에 대한 묘사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부친에게는 ‘公’이라 통칭하고, 아들에게는 ‘君’이라 불렀다. 이외에도 망자에 대한 직접적 인물 평가 표현은 극도로 최소화한 채 직접 목격한 일화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일화 다섯 가지를 나열해 놓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글이 크게 달라졌으며, 치밀한 문단 배열을 통해 서사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가려져 있던 묘주의 은폐된 고통을 명확하게 가시화하였다.

이 변화 양상을 살피면, 첫째로 ‘엄격한 가풍과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 편견’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문장이 추가되었다. 먼저 가장 크게 확대된 부분은 ‘㉒請銘于余와 ㉓潘南人也’ 부분이었다. ㉒는 비지문을 부탁하는 대화 54자와 수락하고서 망자의 진면목에 대해 공감하는 대화 111자, 총 165자가 추가되었다. 이 두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지 않고, 반남인의 가풍과 망자의 고독한 생애를 사이에 두고서 이중 배열한 결과 비로소 망자의 ‘鬱鬱無誰語’한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때 대폭 확장된 부분이 바로 ㉔인데 총 266자가 새롭게 추가되어서, 부친이 망자의 생애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배경을 설명해준다. ‘졸박’이라는 가풍 뒤에 ‘謹慎’하며 더욱 ‘掩匿’해야 했던 상황을 덧붙여서, 부친이 왜 망자의 ‘맑고 트인 흥금과 빛나고 화려한 문장’을 몰랐는지를 설명해준다.

두 번째로는 ‘억눌린 문사(文士)적 기질’을 부각하는 문장 수정이 진행되었다. 맑고 깨끗한 마음과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홀로 답

답해하던 일화들이 추가되었다. ‘적극적 개작’의 11-(1)-㉔의 감탄사 ‘嗟乎~’ 이후로 망자의 죽음이 가져오는 ‘後嗣’의 어려움과 망자가 지녔던 ‘詩多敬新’한 문사(文士)적 재능과 ‘善相人’한 돌출한 능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세 번째로는 ‘비극적 운명에 대한 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단이 재배열되었다. ‘소극적 개작’에서는 망자의 요절을 전반부에 담아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면, ‘적극적 개작’에서는 생몰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뒤로 옮겼으며, 절제된 감정으로 최대한 담담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15-(7)을 14-(9) 뒤로 옮겨져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가족에게 알리기까지 일련의 행동들을 ‘관상을 잘 보던 능력’과 연계하여 보여준다. 그 결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며, 애달픈 마음에 두 손을 놓고 멍하니 망자가 ‘晝空’하던 극한의 외로움을 공감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적극적 개작’ 계열에 덧붙여진 후평이 이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누가 쓴 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과정록)』, 박희병 역, 돌베개, 1998.
박지원, 『연암집』 권2, 신호열·김명호 역, 돌베개, 2007.

2. 단행본 및 논문

- 김동국,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서 본 한중문화교류 연구; 문화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 영, 「<과정록> 해제」, 열상고전연구 Vol.8, 1995.
-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 대동한문학 Vol. 23, 2005.
- 김영진, 「박지원(朴趾源)의 필사본 소집(小集)들과 자편고(自編稿) 『연상각집(煙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 東方學 Vol.48, 2010.
- 김종민, 「발승암기의 개작 양상과 주제에 대한 비평적 분석」, 한국한문학 연구 Vol.52, 2013.
- 김혈조, 「연암 박지원의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연구 -개작과정과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한문학회 Vol.22, 2010.
- 박은정, 「박지원의 ‘조정집서(楚亭集序)’ 다시 읽기 -서(序)와 교차 읽기를 토대로」, 東方學 Vol.30, 2014.
- 박향란, 「연행록소재필담의 연구; 홍대용·박지원 등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2010.
- 서현경, 「『과정록』 이본 서문의 상이성에 관한 연구-전남대본 『열하일기』의 개작 및 박종채와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 Vol.23, 2006.
- 윤기홍, 「박지원과 후기사가의 문학사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정 민, 「연암 박지원의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개작과정」, 문헌과 해석사, 2000.

- 정 민, 「연암 척독소품의 문예미」, 한국한문학회연구 Vol.31, 2003.
- 천금매, 「18~19세기 조·청문인 교류척독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2011.
- 한상일, 「북학파의 實心的 예술사상 연구; 홍대용·박지원·박제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16.
- 홍아주, 「박종채의 『과정록』 연구 : 진기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5.

【Abstracts】

A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Park Ji-won's 「Epitaph for Park Su-su at
the *Hongmungwan Jeongja*」

- With a focus on the variations between
the different versions

Hyun An-ok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adaptation intentions of the author and the variations of the adaptation process through an analysis of the different version of the Epitaph for Park Su-su at the *Hongmungwan Jeongja*. In particular, the study dealt with how the life of the deceased was emphasized in the adaptation.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d the variations of the Epitaph for Park Su-su at the *Hongmungwan Jeongja* published in *Byeongsaejib*, *Yeonamchogo*(八), *Gyeomheonmanpil*(乾), *Eumhwagyejib*(乾), *Yusanggogsujeongjib*(乾), *Hapoongjukrohchanggi*(坤), *Baekcheokohdonggakjib*(坤), *Yeon-sang-gak-jip* (墓銘), the Gyeseo version of *Yeonamjib*, and the Park Yeong-chul version of *Yeonamjib*. The study made comparisons by distinguishing 'Passive Adaptation (I)' and 'Active Adaptation (II)' based on the parts that clearly distinguish character entries between variations. As a result, the 'Passive Adaptation (I)' type had fewer character entries, excluding Chinese character variants, while there were various forms of Bijeom(批點). The 'Active Adaptation (II)' type, in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had many subsequently added sentences and deleted characters. In particular, the sentences ‘㉠ He asked me for an epitaph (請銘于余)’ and ‘㉡ He was a Bannam Park(潘南人也)’ in ‘Passive Adaptation(I)’ are parts that clearly differ.

The difference between variations enabled the distinction of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adaptation intention of Park Ji-won. First, sentences were added to explain the ‘strict family tradition and the negative prejudice of the people in the world’. This was the reason that the deceased had no choice but to carefully hide his true heart. Second, there were sentence modifications that highlighted a ‘suppressed literary temperament’. Anecdotes about how the deceased failed to demonstrate his clear, clean heart and brilliant literary talents, and how he suffered alone were added. Third, paragraphs were rearranged to show his ‘foreknowledge of his tragic fate’. Right after the anecdote of having his fortune read by a physiognomic before his death, the grief due to his early death was added by attaching the sentence that the ‘physiognomy reading hit the mark’. This reveals in the forefront his ‘ultimate loneliness’ of being unable to share his heart with no one all his life and his ‘pain of being unable to deny his fate’. To achieve this, Park Ji-won changed the conclusive descriptive method into a listing of anecdotes and a description of situations, increasing the literary value by adopting dialogue.

Key words: Park Ji-won, Epitaph, Park Su-su, Epitaph for Park Su-su at the *Hongmungwan Jeongja*, Variation Analysis, Adaptation Process and Intention, Strict Family Tradition, Literary Temperament, Ultimate Loneliness, Anecdote Listing, Situation Description, Dialogue Quotation.

이 논문은 2016년 5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